

#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금속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유 승 희 · 금 기 숙\*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학과 부교수\*

## A Study on Metal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Women's Fashion in 1990s-

Seung-Hee Yu · Key-Sook Geum\*

Major in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s Hongi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iber Arts Hongik University.

### ABSTRACT

In contemporary fashion, metal have used which is as the material with a sufficient potentiality of expression which is displayed by an unique characteristic involved only in metal.

In this paper, metal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is researched.

The first th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metal is research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type, technique, and color of metal used in contemporary fashion.

Metals such as gold, silver, bronze, aluminum, tin, lead, and iron are usually used in fashion, and those metals are used in various types such as thread, fabric, board, leaf, and cable.

Those types of metal as above are applied to the clothing by the techniques of weaving, embroidering, metal leaf, printing, or moulding, which giv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to the clothing.

In color, metal has an effect on the colors of surroundings by its smooth and unique luster and its effect of reflection, and produces the visual formative characteristic through the effect of contrast.

The esthetic will of metal expressed in modern fashion is researched in this study under the facts studied as above.

First, metal expresses the future oriented esthetic

Second, metal has the characteristic of attracting the attention.

Third, metal is used as valid techniques to express the artistic formation for clothing, escaping from the idea that the clothing is only for wearing.

Finally, metal is used as an anti-cultural tool of fighting against the existing order or spirit.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etal are used for functional material and even for the creative work. It can be proposed that metal will take a role of guiding a new trial and suggesting the way to go for fashion including extending the formative area of fashion and material.

Key Word : 현대 패션, 금속, 조형성, 미적 의지

Metal, Contemporary Fashion, formative characteristic, esthetic will

## I. 서론

현대는 사상 유래 없는 격심한 문화 변천 속에서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발생되고 이것은 패션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오토 와그너(Otto Wagner)가 “모든 새 양식은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과제 및 생각이 기존의 형식의 변천과 또는 신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성립하였다”<sup>1)</sup>고 말하듯이, 패션에 있어서도 단순한 기계의 발달이나 의복 제작 기술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기 변혁의 시도와 미적 추구라는 인간 욕구에 의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을 이루는 소재 역시 과학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는데, 새로운 시각 형식의 탐구는 각자의 개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다차원의 형태와 여러가지 기법들로 표현되었다. 금속은 보통 섬유 소재와는 이질적이고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를 사용하거나 다른 소재와 결합시킴으로써 또는 그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복식에 활용되었다.

특히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이것은 의식전환으로 이어져 현대 패션에 있어 금속은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나 기법으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조형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속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한 후, 현대 패션에 사용된 금속의 조형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금속은 어떠한 미적 의지를 보여 주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1990년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하며 인지도가 높은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사진 자료의 분석을 병행하기로 한다.

## II. 금속에 대한 일반적 고찰

금속(金屬)은 라틴어로는 metallum에서 유래되어 영어로 metal로서 사전에 의하면 “보통 쇠붙이나 금붙이라고도 말하여지는데, 특수한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는 잘 전도하여, 퍼지고 늘어지는 성질이 풍부한 물질의 총칭이다. 상온(常溫)에서는 수은만을 제외하고는 보통 불투명한 고체로서 비중<sup>2)</sup>이 4.0보다 무거운 것을 중금속(重金屬), 가벼운 것을 경금속(輕金屬)이라 한다.”<sup>3)</sup>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학적으로 합금과 구별되는 순수한 상태의 물질, 합금이나 형성 물질이나 재료, 금속 제품의 의미도 포함하며, 비금속(卑金屬), 귀금속(貴金屬), 중금속, 경금속, 주철(鑄鐵), 판금(板金)을 말할 때도 사용된다”<sup>4)</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속은 수십가지의 순금속과 그 순금속의 합금들로 종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철 성분이 들어 있는

1) 박성은, “섬유 미술의 표현 기법을 응용한 금속 장신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p.1.

2) 비중: 어떤 물체의 무게와 이와 같은 부피의 섭씨 4°C의 물의 무게와의 비.

3) 『국어대사전』, 서울:삼성문화사, 1991, p.394.

4) 조성식, 『영한대사전』, 서울:금성출판사, 1992, p.2049.

철금속과 철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비철금속(非鐵金屬)으로 크게 나누며 철금속에는 선철(銑鐵)과 주철(鑄鐵) 그리고 강(鋼)으로 구분되며 비철금속은 철금속이외의 모든 금속을 말한다. 많은 비철금속(非鐵金屬)중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금, 은,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또 다른 구분 방법은 금속 가운데서 희귀한 것을 귀금속이라 하고 그 밖의 것은 비금속(卑金屬) 혹은 일반 금속으로 분류하며 이 밖에도 금속에 따라서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여러가지의 분류 방법이 있다.

패션에 사용되는 금속은 철금속중에서는 강(鋼)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철(鐵)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강은 철사, 철판, 철근 등의 가공 형태로 많이 쓰이고 강도가 커서 골재나 받침대 등의 지지대로 응용되고 있다. 금속의 선(線)으로 가느다란 선의 총칭인 철사는 이것을 압연하거나 납작한 평판형이나 단면의 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비철금속(非鐵金屬)중에는 금, 은, 백금 등을 포함한 귀금속과 금, 은의 합금이 중심이 되고, 구리와 구리의 합금인 청동(bronze), 황동(brass), 주석, 납, 백랍 등이 많이 활용되고 현대에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신금속(新金屬)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금, 은, 백금 등과 같은 귀금속은 잘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색깔과 함께 희귀성, 내약품성이 풍부한 가공성으로 인해 보석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며, 장신구나 장식품, 공예품, 재화가치의 폭도가 되어 화폐로도 많이 쓰인다. 또한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이온화 경향이 적고 공기 중에서 고열로 가열하여도 산화되지 않으며 산이나 알칼리 등에는 잘 침식되지 않으나 왕수(王水)<sup>5)</sup>와 같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약품에는 녹아서 침식된다.

패션에서의 금속은 주로 금속섬유, 금속사, 금속색, 금속장신구 아이템(item) 등으로 나타난다.

금속 섬유는 "무기질을 원료로 한 인조 섬유 중의 하나로 옛부터 귀족들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순금속으로 된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섬유를 제외하고는 폴리에스테르나 아세테이트에 알루미늄박을 입혀 염색하거나 색을 넣어서 금·은과 같은 장식 효과를 나타낸 것"<sup>6)</sup>으로 고도의 내연성, 불연성과 더불어 전기나 열의 양도체인 점이 특징이며 자유개발에 수반되어 특히 주목되어 왔으며, 최근에 스테인레스 섬유가 제조되고 있다.<sup>7)</sup>

금속 섬유를 이루는 금속사란 금속 광택을 가진 실의 총칭으로 박사(箔絲), 절박(切箔), 평박(平箔)과 금·은사가 있다. 포멀(formal)한 장식적인 벽지나 환상적인 무드의 복지에 사용된다고 설명하였고 금·은사는 나일론이나 인견사의 심사(芯絲)에 절박을 꼬아 감은 것으로 연금사(捻金絲)나 연금(捻金)이라고도 한다.<sup>8)</sup> 그리고 라메(lame)는 금속의 절박과 금·은사의 총칭으로 금속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sup>9)</sup>, 실과 섬유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패션에서 나타나는 금속은 단순히 금속 자체의 쓰임뿐 아니라 금속의 고유 성격을 이용한 것에도 확대되어 메탈라인, 메탈릭룩, 메탈릭슈크, 메탈백 등도 나타난다.

## II. 현대 패션에 활용된 금속의 조형성

### 1. 종류

현대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은 금, 은, 백금

5) 왕수(王水): 진한 염산에 적당량의 질산을 혼합한 용액.

6)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사전』, 서울:도서출판라사라, 1991, p.426.

7) 배침범, 『패션사전』, 서울:디자인신문사, 1991, p.19.

8) 라사라 교육개발원, 전계서, p.426.

9) 라사라 교육개발원, 상계서, p.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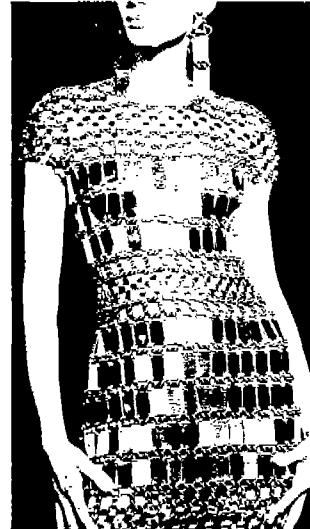
등의 귀금속과 금, 은의 합금이 중심이 되고 구리와 구리의 합금인 청동, 황동과 주석, 철 알루미늄 등으로서 소재로서 금속의 고정 관념을 벗어 활용이 시작된 것은 1967년 알루미늄 판으로 만든 메탈 드레스와 1968년 파코라반의 알루미늄 저지의 개발을 시작으로 철강(steel)으로 만든 의복부터이다.<sup>10)</sup> 그 이후 파코라반은 현대적인 메탈 드레스를 해마다 발표하였고 그후 다른 디자이너들도 적극적인 도입이 시작되었다.

파코라반은 금속 의상을 통해 창조성을 나타내며, 금속을 통한 빛의 진리를 담아 메시지를 담고자 하였다. 파코라반은 금속이 발산하는 빛을 통해 투명함과 진리, 기쁨 그리고 이와는 상반된 인간의 비참한 운명과 고통을 담고 있는데, 이는 거칠고 강한 금속 소재를 통해 메시지를 표현함으로써 바로 그 안에서 시대와 현실의 공감과 함께 현대인의 고독의 소리를 예술로 승화시켜며 현대 패션의 새로운 철학적 기능성을 제시하는 소재로 금속을 인식하였다.<sup>11)</sup> (사진 1)은 파코라반의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의복으로 강철(steel) 사각 조각을 고리로 연결한 단순한 실루엣의 드레스이다. 파코라반은 고전적인 소재보다는 금속을 이용하는 것이 극단적인 미니멀(minimal)한 의상을 표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sup>12)</sup> 이 드레스의 철판은 자율적인 빛의 반사와 규칙적인 배열감은 오히려 운동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아방가르드라는 양식을 빌어 중세의 갑옷을 모티브로 일상적인 패션의 개념을 깨고 있다.

구리의 합금은 조형적인 소재로 자주 이용되는데, 구리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느낌을 지닌 청동이나 황동 등의 합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특히 바렌 듯한 이미지는 고전적인 느낌도 들게 하며 딱딱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으로 도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알루미늄은 1827년 비교적 근대에 개발된 금속으로 전연성이 우수하고 구조가 용이하며 얇고 가벼운 성질과 광택은 패션에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1) Paco Rabanne, '97 S/S  
Mode et Mode No.298 p.49.

알루미늄은 섬유로도 개발되었는데 알루미늄이 섬유는 알루미늄의 함유율이 높아 고온에서도 줄지 않고 가벼우며 고온 단열재로서 적격이다. 또한 탄성률이 높고 전기 절연성과 전파 투과성이 좋아서 전파 투과성 구조재, 스포츠·레저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현재 대중적인 소재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실용 기술이 확립되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sup>13)</sup>

금과 은 역시 의복에 많이 쓰이는데, 경제적인 이유와 무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하거나 도금이나 박(箔), 가루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금은 광택이

10) François Boucher, 2000years of fashion, NY: Harry N. Abrams Inc, 1987, p.423.

11) 채금석, "중세부흥주의", Fashion Today, 1995년 6월, p.86.

12)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경춘사, 1995, p.225.

13) 김준의 1인, 『패션 소재의 지식』, 서울:수학사, 1995, p.166.

우수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의복 뿐 아니라 장신구나 단추나 벨트 등 의복의 디테일에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금도금은 금의 합금 정도와 합금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광택 효과를 내며 색이 아름답고 쉽게 변하지 않아 장신구나 디테일에 많이 쓰이기도 한다. 또한 은은 항균 효과가 있어 일반 섬유와 함께 직조하여 살균 작용을 하는 기능성 소재로 개발되고 있다.<sup>14)</sup>

금속은 같은 소재이지만 가공 방법과 조형 기법을 달리하여 전혀 다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순금속 뿐 아니라 합금을 이용하여 같은 재료로 다양한 소재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섬유가 표현하지 못하는 패션의 부분에 현대적인 재료로서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재료로 복식 조형에 다양한 조형성을 꾀할 수 있는 소재로 인식되게 한다.

## 2. 표현 형태

패션에서 금속은 섬유나 케이블, 조각, 판(板), 박(箔) 등의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금속 섬유를 이루는 금속사는 금·은박(金·銀箔)이나 금속의 전연성을 이용하여 직접 실에 증착시켜 사용한다. 순수한 금속사는 금·은사가 그 대표적이며 또한 스테인레스 강, 알루미늄을 직접 연신하여 실로 뽑아 섬유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광택을 나타내는 다양한 금속사를 개발하고 있다.

금속박사(金屬箔絲)는 금, 은, 주석, 알루미늄 등 금속박을 절단하여 실로 만든 것인데 섬유의 실을 심으로 하고 금속박으로 된 실을 꼬아서 만든다. 고대에는 견사를 심으로 하여 그 표면에 직접 금박

(金箔)을 입혔지만, 현재에는 폴리에스테르나 아세테이트에 알루미늄 박(箔)을 입혀서 염색하거나 색을 넣어 금·은과 같은 장식 효과를 나타낸다.

라메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 박을 접착하거나 알루미늄을 진공 증착한 포일(foil)을 말하는데, 보통 금속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금·은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으로도 착색할 수 있다.<sup>15)</sup>

금속사(金屬絲)로 만든 금속 섬유는 일반 소재와는 달리 차갑고 매끈하며 광택을 지니고 있어 이질적이고 상반된 모순을 가지고 있으나 금속의 독특한 특징인 광택성은 빛에 대한 위치나 조명뿐만 아니라 직조 방법에 따라, 섬유 조직의 방향에 따라, 각기 금속사의 반사 각도가 달라지며 물리적인 특성의 변화 정도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다.

또한 금속 광택의 이용은 주위의 시선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은 주변으로부터 부각되어 보이거나 시선의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속 섬유 역시 자신을 남과 다르게 나타내고,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의 개성과 특별해 보이고자 하는 욕망과 맞물려 유행으로 부상하거나 혹은 자기표현을 위한 이미지로 작용하며 실제 시즌의 트렌드가 되기도 한다. 특히 98 S/S 나 98/99 A/W 는 금속성 소재가 대중적인 트렌드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98 S/S 남성복·여성복의 트렌드 중 소재와 컬러의 방향에 금속 섬유나 금속 코팅으로 인한 광택, 메탈릭한 샷(shot)효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sup>16)</sup> 금속 섬유는 섬유로 조직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시각적 재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시각적 재질이란 다양한 표면 효과를 개별적인 단위로 지각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혹은 표면에 분산되어 있는 작은 내용물들로 지각되는 재질감이다.<sup>17)</sup> 이러한 재

14) “신소재 전시회”, 월간섬유, 1997년 10월, p.183.

15) 김준외 1인, 전개서, p.103.

16) “98 s/s 남성·여성복 소재와 컬러”, 월간섬유, 1997년4월, pp.196-7.

17) 근거숙,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도서출판이즘, 1997, p.165.

질감은 금속사 종류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실과 직조 방법에 따라 재질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면의 재질감은 전체 안에서 각각의 시각 부분에 대한 공간적 위치를 제공해 주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표면이 다양할 때는 표면의 재질감으로 원근의 효과를 나타내는데<sup>18)</sup> 금속사와 함께 직조될 경우 소재의 재질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사진 2)에서와 같이 니트와 금속이 함께 직조되어 반사되는 효과는 니트의 느낌을 더 거칠게 하며, 금속사에 의해 표면이 돌출 되어 보이므로 표면 면적이 확대되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또한 금속사의 반사로 인해 표면이 활기차고 팽창 것처럼 지각되어 실루엣보다 우선적으로 표면의 재질감이 부각되어 가깝게 느끼게 한다. 이처럼 금속이 함께 짜여진 섬유는 풍부한 표면 재질감을 가지며 원근 효과나 시각적인 우선성을 지닌다.



(사진 2) Vivienne Westwood, '92-'93 A/W collections II p.41.

제작·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이며 새로운 복식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금속은 섬유로 사용될 뿐 아니라 금속 자체로 의상에 도입되고 있다. 금속은 일반 소재에 비하여 자체적으로 형태 유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소재에서 느낄 수 없는 조형을 갖는다. 즉 금속은 인체에 대해 독립적인 형을 형성하여 인체의 선을 강조하거나 위장하며 전체적으로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웅가로(emanuel ungaro)는 금속을 불규칙하게 잘라 만든 탑리스(topless)를 제작하여 마치 금속으로 패치 워크(patch work)<sup>19)</sup> 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여(사진 3) 인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것은 조각의 방향을 각각 달리함으로써 금속의 반사성이 고조되며 표면 효과의 가변성을 띠게 한다.



(사진 3) Vivienne Westwood, '92-'93 A/W collections II p.41.

패션 소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형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실험 정신의 과학 기술로 의상을

금속의 형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코라

18) 금기속, 상계서, p.87.

19) 패치 워크(patch work): 남은 천이나 헨 천을 형지(型紙)대로 재단하여 기하학적 무늬나 다른 무늬로 배색 효과를 살리면서 이어 붙이는 방법.

반은 '미래의 옷은 더 이상 깨매지지 않을 것이다. 깨매는 작업은 하나의 속박이다.'라고 하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 표현을 하고자 했다.<sup>20)</sup> (사진 4)는 금속 케이블을 그대로 의복에 도입하였다. 금속 케이블은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울동감과 리듬이 형성되며 금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전위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4) Paco Rabanne, '98 S/S  
Fashion News Vol.46 p.92.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인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금속은 인간의 내면적인 것까지 표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복식 조형을 통해 정신적 세계까지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속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확대 가능성 뿐 아니라 복식 조형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 3. 활용 기법

금속의 조형 기법은 직조, 자수, 콜라주, 프린트,

엮기, 주조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금속의 조형 기법은 의복에 표현성을 부여하며 의상의 실루엣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그 의복으로 시선을 유도하고 주의를 불러 일으켜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창의성과 독특함을 구현하고자 미적·예술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지고 있다. 소재와 패턴(pattern)의 대조·대비는 의외의 효과로 나타난다. 특히 의상은 오로지 표현성(表現性)을 위해서 만들고 실용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부분, 혹은 실용을 훨씬 넘어선 장식적인 부분을 갖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복식 표면의 표현성을 위해 직조, 자수나 박(箔), 프린트 등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의상의 실루엣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표면 장식의 선과 색채는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시각적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표면 장식이 있는 의복은 없는 의복에 비해 시선을 강하게 유도하고 주의를 불러일으킨다.<sup>21)</sup>

비잔틴 시대 이래로 많이 이용되어 온 금속 자수는 인체에 강한 윤곽을 부여하며 둘러싸인 인체에 빛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자수는 직물의 발달과 함께 변천하여 왔는데 프린트나 박(箔)보다 입체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금속 자수는 화려한 광택으로 가죽에도 조화가 잘 되어 가죽 표면의 표현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사진 5)

금속 프린트는 자수 보다 반사의 효과가 더 크고 선명하여 표현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 금속 프린트(metallic print)란 금속 광택을 무늬의 일부에 가한 날염법으로서 금가루와 은가루를 합성수지의 접착제와 혼합해서 날염한 것으로 주로 가는 선 부분에 실시한다. 특히 라메 프린트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을 진공증착(眞空蒸着)한 절박(切箔)의 미세한 조직이나 고운 가루를 접착제에 혼합해

20) 채금석, 전계서, pp.195-7.

21) 장문호, 『복식문화』, 서울:세운문화사, 1977, p.140.

서 바탕 천에 직접 날염하는 다이렉트 법이다. 증착한 알루미늄이 박(箔)모양으로 떨어지기 쉽도록 한 알루미늄 증착 필름에 접착제를 날염한 바탕천에 부착하여 박(箔)모양의 알루미늄을 바탕천쪽에 전사(轉寫)하는 금속박 전사법에 의해서 행한다. 이것은 금·은가루에 의한 방법보다 광택이 현저하거나 선명한 색으로 착색되는 특징이 있다.<sup>22)</sup>



(사진 5) Gianni Versace, '97-'98 A/W  
Fashion News Vol.43 p.46.

표면 효과는 2차원적인 표면 위에서 다양한 작업에 의해 형성되는데 (사진 6)은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의상 표면에 문양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금속 스팅글 장식은 그 의상을 특징 짓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여 의상에 특별한 인상을 부여하며 각도와 위치에 따라 입체적인 표면을 강조하고 있다. 은색의 스팅글은 단순히 표면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표면의 깊이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형태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의복의 조형 기법으로 인해 표면이 위치와 각도 또는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유연성과 형태 유지가 가능한 금속 케이블은 섬유 미술의 공예적 기법을 패션 디자인에 반영시켜 하나의 조형체로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반 니트와 다른 디테일이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금속 섬유는 직조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라메사를 다른 직물에 함께 직조하면 금속의 광택감으로 인하여 표면 장식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자카드 직조나 브로케이드 직조는 직조 자체가 의복의 문양이 되므로 금속사의 이용은 효과적이다.



(사진 6) Chanel, '91-'92 A/W Book Moda  
p.173.

#### 4. 색채 및 색채 대비

일정한 색에 대해서 높은 반사 능력을 갖고 있는 금속색은 금속의 표면에서 겉보기로 나타나는 색이

22) 라사라 교육개발원, 전게서, p.541.



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는 금속과 같이 보이는 표면색<sup>23)</sup> 역시 금속색이라고 한다.<sup>24)</sup> 금속색은 어떤 특정한 파장의 강한 반사로 인하여 지각되는 표면 색이며 또한 금속색은 색과 광택이 동시에 존재한다. 금속은 빛을 통과시키지 않아 불투명하게 빛나는 것이 특징이다. 금속은 백색광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무색으로 빛나는데, 그 근원은 금속이 전기를 잘 통하는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다.<sup>25)</sup>

광선은 물체의 윤곽, 거리, 위치, 상태, 표면의 재질, 색채를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색의 지각은 색의 근원인 빛에 의존한다. 그런데 광택이 있는 금속의 반사는 금속에 닿는 빛이 어떠한 색채든 상관없이 금속 광택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되어 나오는데 이러한 표면 반사 특징에 의해 표현 효과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반사는 표면의 명암 효과를 더욱 크게 나타내는데 명암 효과는 표면 효과의 풍부한 근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색상보다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한다.<sup>26)</sup>

빛은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을 더욱 짙고 더욱 집중적이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차이점을 강조시키며 삼차원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극적 성질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다.<sup>27)</sup> 특히 (사진 7)처럼 명암이 금속 스팅글 빛의 반사에 의해 밝은 부분은 강조되며 어두운 부분은 더욱 짙는데 이것은 광원의 집중성(sharpness), 광도, 각도에 따라서 빛의 효과에 차이를 나타내며 이것은 표면을 재구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sup>28)</sup> 명암을 가지기 때문이다. 밝고 어두운 명도의 정도는 명암을 수용하는 능력으로서 금속 표면은 명암을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나

시각적인 조형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각적 재질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사진 7) Krizia, '96 S/S Mode et Mode No.293 p.27.

또한 금속의 광택은 항상 일정하게 모든 빛을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효과를 갖는다. 빛은 강한 광선들에 대한 색채 지각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색채들을 흐리게도 한다.<sup>29)</sup> 이것은 직물에서 비금속적인 부분에 빛이 선택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정도가 인접한 금속 광택이 더 많은 빛을 반사하므로, 인지된 색은 혼합되어 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옅은 푸른색에 은박을 장식한다면 금속적인 부분의 색이

23) 표면색(surface color):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색.

24)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미진사, 1989, p.21.

25) 『세계대백과사전』, 전계서, p.2410.

26) 금기숙, 전계서, p.64.

27) Marian L. Davis(이화연외2인譯),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경춘사, p.150.

28) Marian L. Davis, 상계서, p.149.

29) Marian L. Davis, 상계서, p.154.

빛에 의해 우선적으로 반사되어 색채 지각을 약하게 만들지만 검정색이라면 은사로 인해 더욱 선명하게 색채 지각을 하도록 한다.

빛들은 주변의 색이나 섞여져 있는 색에 의해 차가운 빛이나 따뜻한 빛을 나타내는데 금사가 붉은 색과 함께 직조될 경우 더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고, 한색계열의 색이 은사와 같이 직조되면 좀 더 차가운 느낌을 준다.

색은 디자인 요소 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인 것이다. 색이란 물체의 성질과 광선의 파장에 의해 개성화, 생명화 된 빛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시각각의 하나로 색은 곧 빛이며, 물질이며, 감각의 세계인 것이다.<sup>30)</sup> 금속색은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간결한 전달 수단으로 인간의 정서에 깊이 파고드는 특성을 가지며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금색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왕실과 귀족 사회의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인 동시에 장중하고 화려한 권위의 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금색은 금빛의 반사가 무수한 명암을 이루며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비잔틴 시대에는 금속 표면의 반사에 의한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색으로 금속은 생활이나 인물로부터 실제적인 현실성을 없애는 색으로 이해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추상적인 색이기도 하다. 이러한 금색은 비잔틴 시대만이 아니라 신관적, 독재적 사회와 절대 군주 지배하의 사회에서 표현된 예술의 색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한다.<sup>31)</sup>

금속의 금·은색은 우주와 4차원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대표적인 색이다. 특히 90년대는 1960년대의 우주에 대한 관심은 과학의 진보와 함께 컴퓨터 문화와 사이버 과학으로 발전되었는데, 금속색중 은색의 광택은 우주의 빛을 연상시키며 과학적으로도 우주 공간에서의 강한 직사광을 반사시키기 위해 광택성이 있는 은색만을 사용하여야 했다. 이러

한 이유로 은색은 더욱 더 사이버룩과 우주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진 8)에서 은색의 비닐로 된 펜츠와 코트는 은색이 주는 광택과 소재의 구김을 통한 청각적인 느낌의 효과로서 사이버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90년대를 접어들면서 부각되는 사이버 패션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패션의 색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 8) Courreges, MoDain No. 285

#### IV. 현대 패션에 활용된 금속의 미적 의의

##### 1. 미래지향성

90년대 나타나는 미래지향적 패션은 1960년대 우주 여행에 대한 관심에서 영감을 받아 시도된 스타

30) 안향신,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p.35.

31) 박은주, 전제서, p.294.

일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시대정신에 의해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시대의 과도한 장식성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형태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전위적인 미래지향적 성향을 보인다.

미래지향적 패션은 우주와 공상 과학을 표현한 우주룩과 여기에 반전통적 정신과 과학주의적 실험성, 기계주의의 비인간성을 내포하는 아방가르드 룩(avantgard look)과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퍼스날 컴퓨터(personal computer) 보급의 급증과 인터넷 사용의 확대는 가상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사이버 룩(cyber look)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주룩은 현실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지 세계로의 지향과 신비롭고 영(靈)적인 우주 질서에 대한 현대인의 동경을 반영한 것으로 우주 시대의 개발은 패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우주 비행복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의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의상 표현 이외에 우주선과 우주복의 은색에서 비롯된 광택의 사용과 특이한 재료를 피복 소재로 출현시켰다.

60년대 미래주의가 은색을 비롯하여 샤이니 슬릭(shiny slick)한 색을 사용했듯이 90년대에도 우주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은색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착색된 금속사를 중심으로 우주룩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금속은 하이 테크노적인 이미지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하게 한다. 여기에 하이테크 풍의 커트나, 금속 디테일 디자인, 금속 장식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첨가해 준다. 또한 무기적 이미지를 갖는 스틸, 빛나는 소재 투명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 미래지향적인 전위 감각을 지닌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부각된 사이버 룩은 90년대에 접어들며 컴퓨터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cyber)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고조되었다. 사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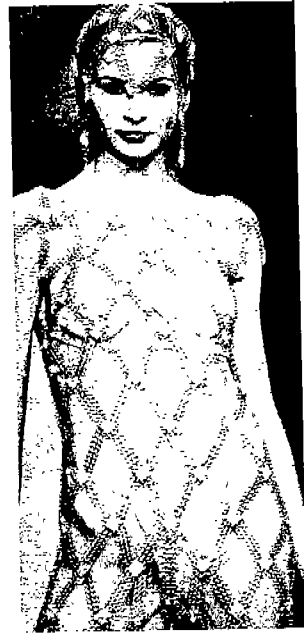
란, 컴퓨터상으로 연결되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사이버 문화(cyber culture)는 컴퓨터 기기와 그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현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상 현실은 사이버가 창조하는 가공의 인물이 직접 들어가서 듣고, 보고, 만지는 등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5차원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상 현실의 세계이다.<sup>32)</sup> 각 분야나 문화에서 21세기 사이버 문화의 가시화 현상은 패션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사이버 패션은 패션에 사이버 이미지를 반영한 것으로 최첨단 과학화에 따른 각종 기계 문명의 반영과 컴퓨터 문화의 창조에 따른 미래지향적 요소를 담고 있다.

메탈릭 패션과 미래적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는 티에리 뮈글러는 1995년에 선보인 작품에서 강철 소재의 기묘함을 느끼게 하는 강렬한 미래형 로봇 수트를 보여준다. (사진 9)는 인간의 인체 구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강철로 입체적인 인체에 맞게 적용시킨 로봇 수트이다. 이 로봇 수트는 인간 생활이 우주까지 확대되고 최첨단 과학이 개발되자 우주 개발과 미세 과학의 작업을 하는 로봇에서 보다 단순한 기능을 가진 형태로 생활의 모든 분야에 조직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로봇 기술을 폭넓게 받아들여려는 미래지향의 의지를 나타내는 수트이다. 인체 구조의 해부학적인 분석과 피부 표면감과 움직임의 반경까지 고려한 강철 바디 수트는 금속이 주는 기하학적 속성으로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은회색의 절개 라인과 그 사이로 보이는 육체는 더욱 아방가르드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속과 피부의 대조가 효과를 더하고 있다.

32) "Cyber-란", Fashion Today, 1994년 11월.



(사진 9) Thierry Mugler, '95-'96  
A/W Mode et Mode No.292 p.20.



(사진 10) Paco Rabanne, '98  
S/S Fashion News Vol.46, p.91.

상상력을 초월하는 대담하고 자극적인 스타일의 드레스인 (사진 10)은 하이테크놀로지로 인해 응용된 메탈 체인과 유리로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으로 몸을 감싸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것은 금속이 빛에 의해 더 활동적이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금속의 속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전위적인 현대적 감각을 느끼게 하며 아방가르드한 미래 이미지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금속은 테크놀로지의 개발로 인해 사이버네틱을 가능케 했다. 금속 체인은 차갑고 냉정한 기계문명을 보는 듯하지만, 금속의 무게감과 힘은 의상 자체가 조형적인 구조물과 같은 웅장함을 느끼게도 한다. 이러한 의상은 금속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며, 금속의 종류나 금속 광택의 정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준다.

## 2. 주목성

복식은 인체와 더불어 하나의 이미지를 창조하며 이러한 창조는 감성과 심성을 전달하는 예술 표현의 한 형태로 분위기를 창조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주목하게 하는 힘이 있다.<sup>33)</sup> 메슬로우(Maslow)는 "의복 착용은 우선 안전하게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한다"고 했다.<sup>34)</sup> 이것은 의복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나타내고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 내며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독창성을 주목받고 싶어한다.<sup>35)</sup>

금속의 조형적 기법과 형태는 창의적인 표현을

33) 마릴린 혼·루이스 구엔(이화연의 2인譯), 『의복:제2의피부』, 서울:도서출판까지, 1988, pp.350-1.

34) 유송옥의 2인, 『복식문화』, 서울:교문사, 1996, p.13.

35) 최병상, 『조형』, 서울:미술공론사, 1990, p.146.

가능케 하며, 금속이 가지는 고유의 색은 일반색에 밝은 빛과 반사로 인해 주위로부터 두드러져 보이므로 복식 조형에 있어 주목성을 갖는다. 또한 금속은 시각적인 강렬함의 극적인 분위기로 인해 대조를 이룬 상태에서 더욱 생기 있는 조화감을 느낄 수 있다.

주목은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것으로서, 강조되고 시선을 유도하고 모으는 것이다. 주목은 각 요소들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연결되어 어느 한 부분이 다른 것보다 두드러진 강조(emphasis), 차이가 나는 요소들을 대립시켜 강조하는 대비(contrast), 어느 한 곳을 향하게 하는 집중(concentration)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sup>36)</sup>

금속 섬유와 일반 섬유는 서로 다른 시각적 재질감을 가지고 있다. 라메는 실크와 전혀 다른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우며 광택으로 인해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은 집중적이고 밝은 시각적 재질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 시각적 재질감은 주목성을 유발한다. 금속이 사용된 의복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강한 빛과 그림자를 수반하여 즉각적인 관심을 끌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금속 그 자체에 밝은 빛과 반사가 있어 주위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로 주목성을 가진다.(사진 11)

주목성은 단추나 벨트와 같은 디테일이나 장신구의 사용에서도 자주 적용된다. 밝게 빛나는 금도금의 단추는 단 하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옷의 초점이나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소재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두드러진 금속 때문인데 심플한 실루엣에 가장 눈에 띄는 강조의 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조는 초점이 창출된 것이며 모든 다른 것들이 흥미의 중심점에 종속되는 원리를 말한다. 일부 예술가들에 의하면 강조는 어떤 한 특징이 주를 이룰 경우를 강조라고 말하는데 시선으로 하여금 눈여겨

보게 하며 여러 부분이 서로 비교하게 하는 것이 강조의 원리이다. 강하고 높은 밝기를 가진 광택은 신체의 부분을 강조하며 커 보이게 한다.<sup>37)</sup> 강조는 지나친 분산감을 제거시키고 언제나 하나의 특질이 두드러져 나타나게 하는 원리로서 단순한 실루엣에 하나의 금속 단추는 강조의 효과를 부각시키므로 디자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금속 그 자체에서 보여지는 무게감으로 인해 안정감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의복 소재의 촉각과 시각적인 대비를 유발시키기도 한다.<sup>38)</sup>



(사진 11) Gianni Versace, '96  
AW Collezioni No.52 p.170

이러한 금속과 의복 소재 대비의 주목성을 이용하여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이름이나 브랜드명을 세진 벨트 버클이나 단추의 장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매두사 머리 모양의 금속 버클은 베르사체의 작품이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듯이 상징적인 심벌

36) 민인신, “비대칭 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p.62.

37) Marian L. Davis, 전게서, p.322.

38) Marian L. Davis, 상게서, p.325.

마크나 로고는 금속에 의해 주변에서 드러나며 주시하게 만든다. 금속 장식은 물리적인 로고에서 장식 이상의 확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패션은 유행이라는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상의 차별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복에 직접적이고 강하게 사용되는 로고는 유사한 패션에 있어 차별화를 기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특히 브랜드의 선택이 곧 이미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 패션에서는 패션 마케팅에 있어 한눈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중요하다. 또한 브랜드나 디자이너의 이름이 외향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브랜드 이미지를 착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회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며 자신을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밝게 빛나는 금속은 시각적으로 우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함과 미묘함에서부터 적극적이고 강력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속의 대비 효과를 나타낸다.

### 3. 예술성

현대 패션은 직물을 소재로 하여 몸에 맞게 재단되어져야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sup>39)</sup>하여 다른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상을 단순히 인체에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그 속에서 인체가 둘러 싸여지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sup>40)</sup>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금속은 디자이너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표현 방법과 영역을 풍부하게 하여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뛰어난 실험성 있는 작품으로 전위적인 현대 감각을 내

포하는 패션으로 이끌었다.

1997년 존 갈리아노는 영국 자선 단체의 전통 의상을 현대 감각에 맞는 작품으로 발표하였다. 붉은색 체크 수트에 여러 종류의 금속 단추로 문양을 놓듯이 콜라주 기법으로 장식한 의상과 황금을 머리에 바른 듯 한 헤어스타일을 조화시켰다.(사진 12) 이것은 금속 콜라주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소재들과 문양들을 한 의상에 함께 혼합시켜 색채와 재질의 동시적 표현을 볼 수 있으며 표현성 강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sup>41)</sup> 또한 금속 콜라주는 의복 소재에 국한된 한계성을 벗어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제시하며 버려진 사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이미지의 의상을 창조하며 차별화를 부여한다. 또한 환상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심적인 효과를 창조해 낸다.



(사진 12) John Galliano, '97-'98 A/W  
Gap collection p.20.

39) 임영자 · 이상례, “현대 의상에 나타난 움직임의 표현성”, 『복식』 20호, 1993, p.128.

40) 채금석, 전계서, pp.217-8.

41) 채금석, 상계서, p.218.

움직임은 미술 역사상 꾸준히 추구되어 온 조형 요소로서 의복에 강한 시각적인 요소를 이끌어 낸다. 20세기에 나타난 운동체 조형인 키네틱 아트는 운동과 빛이 직접 물질로서 표현되어 실제 운동을 미적 형태와 구조로 창조하였고 미래주의 시공간 개념이 도입되어<sup>42)</sup> 패션에서 키네틱 패션을 이끌어 냈다.

복식은 다른 조형예술과 달리 인체라는 생명체에 입혀짐으로써 움직임과 빛속에서 새로운 드레이프를 창조하게 되며,<sup>43)</sup> 키네틱 아트에서 보이듯 운동과 빛이 물질로서 직접 복식에 표현된다고 보았다.

금속가공업자(Le Metalluge)라는 별명은 가진 파코라반(Paco Rabanne)은 금속 의상을 일종의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게 착용시켜 전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예술적 조형성에 중심을 둔 의상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그는 빛이라는 주제를 의상에 도입시켜 금속과 빛과 움직임에 관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사진 13)은 새틴 드레스 위에 금속 체인으로 만든 드레스를 씌워 금속 체인의 운동성이 빛의 반사와 광택을 다각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의상 형태를 모호하게 하는 시각 효과와 함께 청각적인 효과를 느끼게 하며, 금속 막대로 만든 드레스는 금속의 울동감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금속 막대에 의해 시각적인 운동감을 유발시키는 키네틱 패션을 나타내고 있다.

의상에 있어 금속이 갖는 예술성은 여러 조형 요소로 표현될 수 있다. 금속은 그 가공 형태에 따라 모양이나 성질을 달리한다. 그래서 섬유나 실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금속의 가공으로 가능케 하여 이것은 디자이너들에게 실험의 대상이 되어 의상을 예술적인 가치로 승화시킨다.



(사진 13) Paco Rabanne, '97 S/S  
Mode et Mode No.298, p.49.

#### 4. 반문화성

현대는 고도의 기술 사회 출현에 의한 합리적인 생활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반면 메마른 기계 시대에 의한 인간 소외의 압박감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남아 돌아갈 정도의 자유 속에 잠재하는 고립되고 불안한 감정에 의해 사람들은 기존의 문화에 대한 반문화를 형성하였다. 反문화는 Counter Culture로서 역문화(逆文化)로도 말할 수 있으며 저항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저항 문화(抵抗文化)라 할 수 있다. 지배 계급 문화에 대항하는 것 같은 투쟁적 요소와 함께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의 문화적 지배를 타파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저항 문화는 지배 문화의 도덕적 기준에서 '권위의 위기'로 표현될 정도로 탈선적이고 퇴폐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문화의 표

42) 변임진, "미래주의 예술 양식의 관점에서 본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pp.40-1.

43)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97, pp.285-6

출인 패션에서도 기존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항이 내포되어 있다. 저항 패션으로서의 복식은 지배 계층의 문화에 대항하는 스타일이나 행동으로 기성세대의 시각에 거슬리는 복장으로 기성 문화에 저항하는 것이다.<sup>44)</sup>

반문화는 60년대의 젊은이들이 월남전, 인종 문제, 성도덕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가치 체계와 젊은이의 가치 체계 사이에 큰 혼란을 가져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반문화는 미국으로부터 전해져와 록큰롤과 새로운 시대의 영웅과 블루진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이 시기의 영감(靈感)을 받은 의상들은 의복을 통해서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 즉, 반문화의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펑크나 록큰롤에서 보여지는 가죽이나 진 소재와 금속의 사용은 반문화를 전하는데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반항의 상징으로 입던 가죽 재킷은 록이나 헤비 메탈에 이르러 더욱 강렬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 금속이 더 많이 사용되어, 의복 형태를 파괴하거나 과잉 장식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었고 펑크에 의해 금속 장식과 장식못이나 핀 등으로 재킷을 뒤덮여 극단적으로 과장되기도 했다.

90년대 금속이 나타내는 반문화적 경향은 70년대 펑크의 시대 정신이 이어지면서 펑크 룩(punk look) 과 사이버 펑크 룩(cyber punk look)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사진 14)는 반항의 상징인 가죽에 금속장식은 반문화적인 느낌을 더욱 부여한다. 가죽 재킷에 금속 체인이나 지퍼, 버클 등의 장식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분위기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며 펑크의 이미지가 보다 고급스럽게 표현된 것으로 기하학적인 절개의 가죽 수트에 금속징이 장식됨으로써 기존 문화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14) Junko Koshino, '92-'93 A/W Collections, p.273

사이버 펑크는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사이버 문화의 가시화 현상으로 패션계에 펑크의 반문화 정신과 현대의 반문명적 이미지가 복합된 스타일로서 사이버 펑크 룩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주는 기술적 진보를 자유롭게 수용할 뿐 아니라 손쉬운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와 자유로운 정보 채널을 수단으로 하여 전통적인 계급 구조를 타파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미래를 사회 활동의 붕괴와 지방 부족주의 형태로 보았던 펑크족들의 부정부적 사고와도 일치하며<sup>45)</sup> 문명 파괴적 외관은 기존의 미의식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펑크와 사이버 펑크의 큰 차이점은 사이버 펑크는 극단적인 펑크 룩에 최첨단 과학의 모티프와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의 펑크를 합성하거나 최신 기술 양식과 산업 쓰레기를 나란히 배열하여 혼용하는 것이다.<sup>46)</sup>

(사진 15)은 장 폴 콜티에의 작품으로 펑크의 반

44) 간문자·박명희,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 되는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28호, 1996년 5월, p.238.

45) Polhermus. Ted,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ouse, 1994, pp.125-7.

46) Polhermus. Ted, 상계서, p.127.



문화적 요소에 사이버적 요소를 가미시켜 사이버 펑크 룩을 선보이고 있는데 반문화적 색상인 검정색의 기하학적인 라인에 반짝이는 알루미늄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모자에서 뿜어 나오는 주방기구들로 표현된 장신구는 기존 관념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사진 15) Jean-Paul Gaultier,  
'92-'93 A/W Collections II

(사진 16)은 코를 뚫어 장식용 금속 고리와 쇠장식을 귀로 연결하여 주렁주렁 연결하고 손에는 중세의 갑옷의 장갑과 같은 강철 장갑은 세기말의 불안과 사회 전반에 대한 반항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 16) Elle(K), 1993년, p.148.

금속 장신구는 어떠한 소재의 장신구보다 강한 이미지를 표출할 뿐 아니라 금속의 날카로운 느낌이나 금속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무의식으로 인해 인체 가학적 장식은 더욱 강하게 인지된다.

## VI. 결 론

본 논문은 패션 소재 중 하나인 금속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선 금속의 일반적 고찰과 현대 패션 속에 나타나는 금속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금속이 표현하고 있는 미적 의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금속은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금속의 조형성은 소재, 형태, 기법, 색채가 중심이 되어 활용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금속은 금이나 은의 한정된 소재만이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합금된 금속 등 여러가지 소재가 패션에 이용되었는데 금속에 따라 주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각각 달리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재 영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금속 소재는 실, 섬유, 판(板), 박(箔), 케 이블 등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직조, 자수, 프린트, 금·은박 등의 기법과 콜라주나 오브제 기법에도 자주 이용되었다.

금속색은 단지 차가운 이미지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착색되는 금속색의 종류나 함께 사용되는 소재, 색 등에 따라 효과의 차이를 크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금속은 다음과 같은 미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 금속은 우주룩이나 사이버룩, 아방가르드룩 등에 활용되면서 미래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금속은 고유의 색이나 광택은 주위로부터 시각적인 반응을 일으켜 시선을 이끄는 주목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금속의 시각적·청각적 속성은 복식 조형에 이용되어 예술 지향성을 표출하고 있었다.

넷째, 금속의 이질적이고 상반된 이미지는 기존 문화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반문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금속은 표현 양식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 독창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의 창작과 표현 매개체로서 사용되어 현대적이며 창의적인 소재임을 확인시켰다. 소재의 발전이 곧 패션의 발전을 의미하듯이 금속 조형 방법의 연구는 표현 영역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속의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패션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기숙,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도서출판 이즘, 1997.
- 김준의 1인, 『패션 소재의 지식』, 서울:수학사, 1995.
-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미진사, 1989.
- 유송옥외 2인, 『복식문화』, 서울:교문사, 1996.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97.
- 장문호, 『복식문화』, 서울:세운문화사, 1977.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경춘사, 1995.
- 최병상, 『조형』, 서울:미술공론사, 1990.
- 배침범, 『패션사전』, 서울:디자인신문사, 1991.
- 조성식, 『영한대사전』, 서울:금성출판사, 1992.
-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사전』, 서울:도서출판 라사라, 1991.
- 『국어대사전』, 서울:삼성문화사, 1991.
- 『세계대백과사전』 9권, 서울:대극출판사, 1972.
- Jamxs Lever, 이경희譯, 『복식과 패션』, 서울:경춘사, 1988.
- Marian L. Davis, 이화연 외2인譯, 『복식의 시각 디자인』, 서울:경춘사.
- Marilyn J.horn, Lois M. gurel, 이화연 외2인譯, 『외복: 제2의 피부』, 도서출판까치, 1988.
- Blanche Payne, 이종남 외3인譯, 『복식의 역사』, 도서출판까치, 1988.
- Brançois Boucher, 2000years of fashion, NY: Harry N. Abrams Inc, 1987.
- Polhermus, Ted,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ouse, 1994.
- 박성은, “섬유 미술의 표현 기법을 응용한 금속 장신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안향신,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 민인신, “비대칭 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 차혜경, “지퍼(Zipper)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임영자·이상례, “현대 의상에 나타난 움직임의 표현성”, 『복식』20호, 1993.
- 간문자·박명희,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되는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28호, 1996년 5월.
- 채금석, “중세부흥주의”, Fashion Today, 1995년 6월.
- “신소재 전시회”, 월간섬유, 1997년 10월.
- “'98 s/s 남성·여성복 소재와 컬러”, 월간섬유, 1997년 4월.
- “Inspiration Fair”, Fashion Marketing, 1998년 1월.
- “'98/99 패션 예측”, 섬유저널, 1998년 2월.
- “Cyber-란”, Fashion Today, 1994년 11월.
- Mode et Mode No.298, No.292, No.293
- Fashion News Vol.46, Vol.43
- Collezioni No.52
- MoDain No. 285
- '92-'93 A/W '97-'98 A/W Gap collection
- '91-'92 A/W Book Moda p.173.
- Elle(K), 1993년